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현 경 실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국악강사의 국악교육실태  
및 교사효능감 조사

201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보 현

국악강사의 국악교육실태  
및 교사효능감 조사

현 경 실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 전공

김 보 현

# 인 준 서

김보현의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현대 사회는 문화간 교류와 개방, 한 나라 안에서도 다문화의 공존 등으로 인해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화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의 우리나라 전통음악인 국악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되는 국악 강사들의 국악 교육실태 및 국악 강사의 교사효능감을 조사하여 앞으로 국악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고 국악 강사의 교사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악 강사의 국악 교육실태 및 교사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2019년 국악강사품제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117명과 인천지역 84명의 국악강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그 중 서울지역 117명 중 전통연희를 전공한 3명을 제외한 전체 19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일반적 특성, 국악 교육실태, 교사효능감으로 총 3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 서울지역과 인천지역 모두 초등학교를 가장 많이 수업하고 있었으며, 중점 수업 분야로는 성악이 높았다. 강사들이 중점적으로 수업하는 분야와는 반대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분야는 사물놀이와 기악이었으며, 수업시간에 장구 외에 주로 사용하는 악기로는 단소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국악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학년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이 가장 높았으며, 음악 교과서에 대한 국악 난이도는 ‘적당하다’의 비율이 높았다. 멀티미디어 의존도는 30%만 보조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전체 150명(75.8%)로 가장 높았으며,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주로 사용하는 영역으로는 ‘감상’ 영역이었다. 국악협회 운영에 대한 만족도에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학교와의 커

뮤니케이션 만족도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국악 강사의 교사효능감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로는 전체적으로 교사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국악 수업과 관련된 학생들의 동기유발, 국악 수준차를 고려한 수업, 국악 이론 지식, 국악 실기 능력, 국악교사로서의 목표의식, 사명감에는 높은 효능감을 보였다.

국악강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에 대한 결과로는 성별과 전공에 따른 교사효능감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학력과 연령, 경력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과 문화예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들의 교사효능감이 높았다.

국악강사풀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18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만큼 국악강사풀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다만, 연구의 대부분이 수업실태와 국악강사풀제에 대한 문제점 등을 분석한 것이 많아 국악강사풀제를 하고 있는 국악 강사의 만족도와 교사효능감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4
3. 연구의 제한점 .....	4
II. 이론적 배경 .....	5
1. 국악강사풀(Pool)제의 개요 .....	5
2. 교사효능감 .....	8
3. 선행논문 고찰 .....	10
III. 연구방법 .....	16
1. 연구대상 .....	16
2. 연구도구 .....	17
3. 연구방법 및 절차 .....	19
4. 자료처리방법 .....	20

IV. 연구 결과 및 분석 .....	22
1. 국악강사의 일반적 특성 분석 .....	22
2. 국악 교육실태 분석 .....	27
3. 국악 강사 교사효능감 분석 .....	40
V. 결론 및 제언 .....	51
참 고 문 헌	
ABSTRACT	
부록1 <설문지>	

## 표 목 차

<표 II-1> 현재 국악강사 선발 기준 .....	6
<표 III-1> 설문지 배포 및 회수 현황 .....	16
<표 III-2> 설문지 구성내용 .....	18
<표 III-3> 연구 절차 .....	20
<표 IV-1> 성별 .....	22
<표 IV-2> 연령 .....	23
<표 IV-3> 전공 .....	24
<표 IV-4> 학력 .....	25
<표 IV-5> 정교사 자격증 .....	25
<표 IV-6> 문화예술사 자격증 .....	26
<표 IV-7> 경력 .....	27
<표 IV-8> 가장 많이 수업하고 있는 학교형태 .....	28
<표 IV-9> 중점 수업 분야 .....	29
<표 IV-10> 학생들의 선호 분야 .....	30
<표 IV-11> 국악 내용 난이도 .....	31
<표 IV-12> 적합한 주당 국악 교육 시수 .....	32
<표 IV-13> 국악 교육을 시작하기 적합한 학년 .....	32

<표 IV-14> 장구 외 주로 사용하는 국악기 .....	33
<표 IV-15> ICT 사용 의존도 .....	34
<표 IV-16> 멀티미디어를 주로 사용하는 영역 .....	35
<표 IV-17>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종류 .....	36
<표 IV-18> 학습지도안 제출 여부 .....	37
<표 IV-19> 국악 교육실태와 협회 만족도 문항 내용 .....	37
<표 IV-20> 19-26문항 리커트척도 빈도분석 .....	39
<표 IV-21> 교사효능감 문항 내용 .....	40
<표 IV-22> 전체 국악강사의 교사효능감 빈도분석 .....	43
<표 IV-23> 전체 성별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 .....	44
<표 IV-24> 전체 연령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 .....	45
<표 IV-25> 전체 전공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 .....	46
<표 IV-26> 전체 학력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 .....	47
<표 IV-27> 전체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유무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 .....	47
<표 IV-28> 전체 문화예술사 자격증 유무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 .....	48
<표 IV-29> 전체 국악 강사 경력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 .....	49
<표 IV-30> 지역(서울, 인천)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 .....	50

# I. 서 론

## 1. 필요성 및 목적

현대로 접어들수록 각각의 나라들은 자신들 고유의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에 만연해 있는 서구 문화의 획일적 가치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되었으며, 동시에 각 나라의 민족들이 가진 문화가 다른 문화와 비교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국악 교육이 중요시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고유한 가치를 지닌’ 문화에 대하여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스스로 문화를 재창출하는 프로컨슈머(proconsumer)적인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는 문화간 교류와 개방, 한 나라 안에서도 다문화의 공존 등으로 인해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화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의 우리나라 전통음악인 국악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악이 단순히 음악의 어떤 한 장르가 아닌 세계화를 이끌 수 있는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문화로서 민족문화교육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국악 교육은 중요한 교과 영역의 하나이며, 이러한 인식은 앞으로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최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초·중등 국악 교육은 다양화, 정보화, 세계화와 관련된다. 국악 교육은 학생들에게 한국문화의 본질을 파악하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심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1)

---

1) 윤명원·주태원, 『교대·사대생을 위한 국악교육지도법』(서울: 국악춘추사, 2007), 23쪽

즉, 국악 교육은 학생들이 전통문화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며, 세계 속에서 가장 한국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전통문화와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국악 교육은 5차 교육과정까지 국악 내용의 비중이 음악 교과서 내 15%~20%를 차지하던 것이 6차와 7차 교육과정에서 국악 내용의 비중이 음악 교과서 내 30%~40%로 상향 편성되어 국악의 비중을 더욱 강조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중점 사항을 ‘국악의 생활화 강조’라는 목표를 세워 국악을 생활 속에서 즐기며 활용하고 국악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제시하였다.<sup>2)</sup> 이렇듯 교육과정에서 국악의 비중과 국악의 생활화에 관한 내용이 확대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악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국악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국악 강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국악을 전공한 교사의 부족으로 사실상 선생님들이 국악 교육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없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00년부터 전문적인 국악강사를 선발하여 학교에 파견하는 국악강사풀제<sup>3)</sup>를 도입하게 되었다.

국악강사풀제는 각 지방의 국악인과 국악과를 졸업한 강사들을 중심으로 국악강사단을 조직하여 이들을 각급 학교로 파견하여 음악 교과과정 및 방과 후 수업, 창의적 재량활동 등에 국악 내용을 직접 가르치도록 함으로써 국악의 중요성과 나아가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이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하에 내실 있는 국악 교육 정

---

2) 김민하(2016).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생활화 영역에 나타난 국악 교수·학습의 특징. 국악교육연구 제 10권 제 2호, p12

3) 2000년부터 국악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국악 교육을 위해 실시된 국악강사풀제는 이후에 국악 분야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무용, 연극 등의 분야로 확대되어 2006년부터 예술강사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국악 분야는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있기에 국악강사풀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상화를 위해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전문 국악강사를 파견하여 국악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국악 강사를 파견하고 있는 실정에 선발 과정을 통해 뽑힌 강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수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국악 강사들의 수업능력, 상황대처능력, 정서적 상태 등 국악강사들의 교사효능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의미하며, 교사효능감도 자기효능감에 포함된다(Bandura, 1997).<sup>4)</sup>” 이런 의미에서 학교의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교사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교사 자신이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확신이 있을 때 학생들에게 긍정적이고 실제적인 자아 성장을 이끌며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수행할 수 있다.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과 자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교사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교사효능감이라고 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교사의 효능감에 따라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되는 국악 강사들의 국악 교육 실태 및 교사효능감을 조사하여 앞으로 국악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고 국악 강사의 교사효능감의 기초자료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4) 김정희(2006). 교사효능감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한국영재교육학회 5(1), p6. 재인용.

## 2. 연구문제

본 연구자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초·중·고등학교 국악강사풀 지원에 따른 국악 강사들의 교육실태는 어떠한가?
2.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되는 국악 강사들의 교사효능감은 어떠한가?
  - 2-1. 성별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가 있는가?
  - 2-2. 연령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가 있는가?
  - 2-3. 전공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가 있는가?
  - 2-4. 학력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가 있는가?
  - 2-5. 정교사 자격증의 유무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가 있는가?
  - 2-6. 문화예술사 자격증 유무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가 있는가?
  - 2-7. 강사 경력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가 있는가?
  - 2-8. 지역(서울, 인천)에 따른 전체 교사효능감의 차이가 있는가?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지역과 인천지역의 국악강사풀제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서 다른 지역에 일반화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2019년도 국악강사풀 워크샵에 참여한 서울지역과 인천지역의 국악 강사가 100%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국악 강사의 의견을 전부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현재 국악강사풀제를 하고 있는 강사를 대상으로 국악 교육실태를 조사하고 국악 강사들의 교사효능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국악강사풀제와 교사효능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 국악강사풀(Pool)제의 개요

#### 1) 국악강사풀제의 역사

국악강사풀제는 2005년 학교 예술 분야 수업을 돕고, 예술현장의 예술가들을 연계시켜 예술 교육의 변화와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성장하는 학생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감수성 및 창의적인 인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악,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등 총 8개 분야의 예술 강사들이 학교 현장에 파견되어 생동감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차 교육과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양음악에 치중되어있는 음악교육을 변화시키고, 학생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음악에 대한 애호심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전통문화 소외 현상을 해결하고자 2000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국악강사풀제의 시행은 다음과 같다. 2000~2001에는 (사)한국국악협회 16개 시·도로 국악 강사선발 단체를 선정 후 시행 계획을 공문으로 발송, 교육청의 협조 하에 강사도 1~4명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첫 시행은 1회당 2시간 이상의 수업을 지도하도록 하였으며, 강사의 수당은 시간

당 23,000원으로 학교 시간 강사보다 높은 수당을 지급하였다.

2002년에는 국악강사풀제를 담당했던 단체 강사들이 배정받은 학교에 직접 전화를 하여 학교의 보유 국악기를 파악하였으며, 한 학교에 강사가 2인이 1조로 배정되는데 두 가지 이상의 국악 수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학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배정하였다. 2인 1조의 강사 수당은 30,000원으로 올랐으며 3월부터 수업이 이루어졌다.

국악강사풀제 초창기에는 국악 실기 전공자 및 국악 전수자 위주로 선발하여 교육현장에 투입하다 보니 학교 현장 파악이 되지 않은 강사와 학교와의 마찰도 일어나고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강사들의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국악 교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자 2003년부터 강사선발 기준을 강화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실기 시험을 치르고 있다. 선발된 국악 강사는 각 지역별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으로 배치되도록 하였다.<sup>5)</sup> 현재 국악 강사의 선발 기준은 다음 <표 II-1>과 같다. <sup>6)</sup>

<표 II-1> 현재 국악 강사 선발 기준

구분	국악강사 선발기준	
목적	학교 국악 교육의 내실화 및 국악 인구 저변 확대	
신청 자격	A전형	B전형
	-관련분야 문화예술사 자격증 소지자/ -국악과 4년제 대학 졸업자/ -국악관련 대학원 졸업자	-관련분야 문화예술사 자격증 소지자/ -국악과 2년제 대학 졸업자/ -최근 10년 이상 해당분야 현장 경력자
선발	1차 선발	

5) 정길선(2005). 학교에서의 국악강사풀제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전통음악학회, pp715-716.

6) (사)한국국악협회편. 「2019년 서울 국악 분야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강사 모집 공고. (서울:한국국악협회, 2018)

시험	서류심사 -최종학력, 예술 활동 및 교육 활동 경력 -교원자격증 및 문화예술사 자격증		
	2차 심사		
	실기	A전형 -단소 또는 소금, 사물, 장구 장단, 민요 -이론시험(구술)	B전형 -전공 -이론시험(구술)
		면접	-예술, 교육 관련 전문성 -모의수업 평가 -강사풀 관심 및 열의도 -적합성 등

2014년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등학교의 7,809개교 약 67%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학생은 약 255만 명으로 38%에 이르고 있다. 예술강사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예술 강사는 4,73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7)

## 2) 국악강사풀제의 목적

현대로 접어들면서 교육은 세계화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이루고자 노력해 왔다. 국악 교육 또한 세계화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있는 초·중등 음악 교사들은 실제로 국악의 중요성과 내실 있는 국악 수업을 하고자 하지만 어떻게 국악이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과 부담을 가지고 있다.

2000년부터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학교 교육의 실정을 파악하고 전국에 걸쳐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국악강사풀제는 서양음악 위주의 수업

7) 한국문화예술진흥원편. 『2014 예술강사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 (서울: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14), 15쪽.

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심어 주는데 있다. 또한, 국악 전공자들의 취업의 문을 넓히고, 음악 교과의 국악 부분의 국악 기초 및 실기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국악 교육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국악강사풀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sup>8)</sup> 첫째, 국악 전문 인력을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서양음악 수업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질적 수준의 국악 교육을 할 수 있다. 둘째, 학교 및 지역과 연계된 체험형·참여형의 국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셋째, 국악 전문 인력을 교육현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며, 주기적 강사 연수 및 재선발 과정을 통해 질적 향상을 꾀하는 국악교육과 능력 있는 강사를 등용하여 학교 현장에 연계성 있는 교육을 함에 있다.

## 2. 교사효능감

### 가. 교사효능감의 개념 및 특징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인간의 동기와 정서적 반응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개념으로 반두라의 대표적 연구 업적이다.<sup>9)</sup> 자기효능감은 불확실한 요소나 새로운 요소를 포함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며, 교사효능감도 자기효능감에 포함된다(Bandura, 1997).<sup>10)</sup> 즉, 교사 효능감(teacher efficacy)은 교사 자신이 가르치

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편, 『2010 국악운영단체 평가 연구』(서울: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0), 13쪽.

9) 민경환(2002). 성격심리학, 서울: 법문사, p145.

10) 김정희(2006). “교사효능감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한국영재교육학회, 5(2), p6.

는 것이 학생의 학업 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교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sup>11)</sup>

따라서 교사효능감의 특징은 교사의 성별, 연령, 학력, 경력, 직무 만족 및 직무 스트레스, 집단 교사효능감(collective teacher efficacy), 학교조직풍토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sup>12)</sup>

Ashton은 교사효능감은 개인적 효능감과 교수 효능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1984: Gibson & Dembo, 1985).<sup>13)</sup> 개인적 효능감은 교사 자신이 가르치는 능력과 관련된 것이다. 교수 효능감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능력이다.

#### 나. 교사효능감의 원천<sup>14)</sup>

교사효능감의 바탕이 되는 세 가지 원천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적 특성으로 학교와 교실 환경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 강한 자신감 보이거나 소극적 자신감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교사의 경험으로 벤즈(Benz), 브래들리(Bradley), 앨더맨(Alderman), 플라워스(Flowers, 1992)는 초임교사와 경력 교사 간의 효율성에 대해 15가지 교수 상황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경력 교사들은 교수 상황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부분에서, 초임 교사는 어려운 동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높은 효능감을 보였다. 교사의 경험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교수 학습의 준비능력이

---

11) 신명희, 강소연, 김은경, 김정민, 노원경, 서은희, 송수지, 원영실, 임호용 공저(2018). 교육 심리학. 서울: 학지사, p341.

12)위의 책. pp341~342.

13)전윤식 감수(2004). 김정섭, 강영심, 강승희, 신경숙, 이영만, 정명화, 황희숙, 허승희 공저. 교사를 위한 교육 심리학. 경기:서현사, p214.

14) Alderman, M.Kay(2015). Motivation for Achievement: Possibilities for Teaching and Learning. 김종남, 임선아 공역(2015). 성취동기 교수-학습에서 성취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서울: 학지사, pp233-236.

다. 이는 수업 목표과제 해결을 위해 교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목표과제 해결의 효능감이 높거나 혹은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교사효능감을 판단하기 위한 여러 정보들은 그것이 환경적 특성이든, 교사의 경험이든, 교수학습 준비능력이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사 자신이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지적으로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다.

### 3. 선행논문 고찰

본 연구와 관련하여 초·중·고등학교 국악강사풀제 지원에 따른 교육실태와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전라북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국악 강사 지원사업에 따른 초등국악 교육의 실태를 연구한 임소연<sup>15)</sup>은 국악 강사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학교의 음악 교사와 시행하고 있지 않은 학교의 음악 교사에게 국악 강사 지원사업과 국악 교육에 대한 인식, 강사 지도 능력 만족도, 학생의 흥미도를 조사하여 국악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에 따른 결과로 첫째, 현직 교사들의 국악 관련 연수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질 좋은 수업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현직 음악 교사 자신이 국악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나 연수의 재교육 기회 부족과 지속성 부족으로 인해 국악 수업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음악 교과서의 국악 부분 비율에 비해 국악 수업의 할애 비율이 적다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공통적인 결과를 얻었다. 국악강사풀제 지원 유무에 따른 국악 교육의 연구 결과에서는 첫째, 국악 강사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하다. 둘째, 각 학교에 배치하는 국악 교육 시수가 부족하다. 셋째,

15) 임소연(2012). 국악강사 지원사업에 따른 초등국악교육의 실태-전라북도 초등학교 중심으로-,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악강사풀제 지원에 따른 강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학교의 국악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국악강사풀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의 수업의 질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다섯째, 국악강사풀제를 다시 이용하고 싶다는 학교가 많다는 결과를 얻었다.

국악강사풀(Pool)을 통해 본 강원지역의 국악 교육 실태조사 연구를 한 이은주<sup>16)</sup>는 강원도에서 국악 강사로 활동 중인 국악 강사와 학교 담당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악강사풀제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국악 강사의 일반적 특성, 만족도, 강사선발 시 고려사항, 경제적 여건, 수업 시 중점 분야, 학생들의 선호 분야, 국악 수업 시 추가해야 할 교육내용, 국악 교과외의 난이도, 교육 시수 등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른 결과로 첫째, 강원도 내 국악 강사들은 활동경력이 주로 3년 이내의 여자 강사들이었다. 국악 강사로서의 자부심이 높게 나타났으며 강사 활동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과 강사 처우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나타냈다. 둘째, 학교에서 국악강사풀제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강사 만족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수업이 실기 위주의 수업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하였다. 셋째, 학생의 만족도에서는 국악 수업을 통해 국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국악이론과 민요 수업 보다는 장구와 타악기 수업을 희망하였다.

경상북도 국악강사풀제의 강사 직무만족도를 연구한 김지영<sup>17)</sup>은 국악강사풀제를 하고 있는 국악 강사의 수업 실태 조사와 국악 강사의 직무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국악 강사의 국악 교육 수업내용과 수업 상황,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설문지를 통해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국악강사풀제에 참여하는 강사는 대학교 국악과 학사 출신의 젊은 여자가 대

---

16) 이은주(2009). 강사풀(pool)제를 통해 본 국악교육의 실태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7) 김지영(2012). 경상북도 국악강사풀제의 강사 직무만족도 분석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다수를 차지하며, 국악강사풀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았다. 둘째, 국악강사풀제를 통해 국악 강사들은 음악 교육과 일반인의 국악 이해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셋째, 국악 강사가 수업 시 중점지도 분야로 민요를 선택하였으며, 수업에 추가할 내용으로 창작 타악을 선택하였다. 자기 계발과 연주 실력, 학생과의 소통, 교육자료 준비, 학생 적성계발 등과 관련한 부분에서 국악 강사는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스스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았다. 넷째, 직무만족도의 결과로 자기 계발과 연주 실력, 학생과의 소통, 교육자료 준비, 학생 적성계발 등과 관련한 부분에서 국악 강사는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스스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경상북도 지역의 국악강사풀제 강사의 사회적 지위 및 자존감은 높은 반면, 경제적인 여건의 한계에 따른 제도적 정책수립과 경제적 지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서울·경기 지역의 초등학교원과 중학교원 120명을 대상으로 국악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는 교사와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사, 현장에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초·중등학교원의 국악 연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조영선<sup>18)</sup>은 첫째, 많은 프로그램들이 짧은 연수시간과 많은 계획 인원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연수 환경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이 사물놀이와 타악기를 배우는 것에 치중해 있다. 둘째, 국악 수업 비중이 낮으며 국악 지도 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셋째, 국악 지도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국악 연수의 실시가 필요하다. 넷째, 국악 연수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교사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교사들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국악 연수를 받은 교원들이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여섯째, 적절한 연수 인원 확보 및 개별지도를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과 현장에 바로 접목 가능한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을 원하고 있다. 일곱째, 국악 연수가 교원

18) 조영선(2012). 초·중등학교원의 국악연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의 실제 수업지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국악 연수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악 수업의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국악 교육의 실태를 분석한 민재은<sup>19)</sup>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초등학교 국악 교육실태를 파악하고자 국악 수업을 진행하는 음악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였다. 설문지 구성 내용은 국악 수업내용, 국악 선행지식 경험을 토대로 7차 교육과정 개정안을 참고하여 수업 시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 내용을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멀티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국악 수업에서 멀티미디어 사용도 크게 늘어났다. 둘째, 멀티미디어의 활용이 증가한 것에 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종류가 76%로 한곳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악 가창 활동에서 가락 익히기 활동이 많았다. 이는 약 65%가 멀티미디어를 듣고 따라 부르는 방법이었으며, 전통매체의 사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악기연주의 장구(장단)연주 활동에서는 구름이나 무릎장단을 치며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음악 만들기 활동 내용은 주로 가사 바꾸기였으며, 40%에 가까운 응답이 창작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국악 창작 활동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국악감상 활동은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곱째, 국악을 배운 경험이 있는 교사가 교과서 내의 국악 내용을 더 많이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로 교사들의 국악 경험이 높을수록 국악 지도 능력이 높았으며 초등학교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질적으로 우수한 국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중등 음악 교사의 효능감 조사 연구를 한 김성혜<sup>20)</sup>는 현직 중등 음악 교

19) 민재은(2008). 초등학교 국악교육의 실태-국악수업의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 김성혜(2019). 중등 음악 교사의 효능감 조사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교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사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및 교사효능감과 음악 교사효능감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였다. 설문지 구성의 내용으로는 일반적 특성, 교직 의식, 대인관계,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교실 통제, 자율성, 교수전략, 근무환경, 음악 교과 지도, 교과 지도 효능감, 동아리 지도 및 운영, 음악 교사의 내적 인정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 교사효능감, 음악 교사효능감 모두 평균 이상의 높은 효능감을 보여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둘째, 문항별 평균 결과에서는 ‘나는 음악 교사로서 목표의식, 사명감을 갖고 있다.’ 라는 문항의 평균이 9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영역별 상관관계에서 교사효능감과 음악 교사효능감이 .60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과 음악 교사효능감, 자기효능감과 교사효능감 모두 .40 이상으로 평균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모두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상 선행 논문들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교육과정, 교사의 자질, 교육자료, 교육환경 등을 바탕으로 국악 강사, 담당 교사, 학생을 중심으로 설문지 혹은 심화 인터뷰를 통해 국악강사풀제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악 강사들에게서는 학교에서의 처우와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이 가장 컸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 자부심이 컸다. 학교에서 국악을 담당하는 교사에게서는 국악 연수의 다양화와 강사 배치 시 강사에 대한 사전정보의 부족, 시수에 대한 불만이 높았으며, 국악 강사의 활용에 대해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학생들은 국악강사풀제를 통한 국악 수업에 흥미와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민재은은 국악 수업의 외적인 조건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과는 다르게 국악 수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중등학교 음악 교사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교사효능감, 음악 교사효능감이 서로 유기적으로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증명하였다.

선행 논문을 토대로 본 연구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악강사풀제의 국악 교육실태를 다시 조사하여 선행 연구에서의 교육실태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악강사들의 교사효능감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어 국악 강사들의 교사효능감을 조사·분석하여 국악 강사 교사효능감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9년 현재 서울과 인천지역에서 국악강사풀제를 하고 있는 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서울지역 강사 총 244명 중 3월 6일 워크숍에 참여한 179명 중 설문에 응한 강사는 117명이었다. 인천지역의 강사는 총 89명 중 2월 19일 워크숍에 참여한 85명 중 설문에 응한 강사는 84명이었다. 서울지역 응답자 117명 중 전통 연희 전공자 3명을 제외하면 서울 114부, 인천 84부로 총 198부가 회수되었다. 연구대상자를 살펴보면, 198명 중 여자 170명, 남자 28명으로 여자 강사가 많았다. 설문지 응답자 수와 비율은 설문지 배포 및 회수 현황 <표Ⅲ-1>과 같다.

<표Ⅲ-1> 설문지 배포 및 회수 현황

지역	대상	배포 수 (부)	응답자 수 (명)			회수율 (%)
			여자	남자	합계	
서울	2019년 국악강사풀 강사	179	103	11	114	63.7
인천		85	67	17	84	98.8
합계		264	170	28	198	75.0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서울·인천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국악강사풀제를 하고 있는 국악 강사들의 교육실태와 교사 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설문지를 통해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김지영<sup>21)</sup>, 이은주<sup>22)</sup>와 김성혜<sup>23)</sup>의 설문지를 참고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지도교수의 자문과 현재 국악강사풀제를 하고 있는 강사 3명의 사전 설문을 통해 수정·보완한 설문을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리커트 척도(Likert-type)와 선다형으로 구성하였다. 선다형 문항은 국악 내용을 3~5지 선다로 객관화하여 고르도록 하였다.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 문항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선다형과 리커트로 분류한 것은 설문의 객관적인 통계를 얻기 위해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크게 일반적 특성 7개, 국악 교육실태 16개, 협회 만족도 3개, 국악 강사 교사효능감 11개로 총 3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Ⅲ-2>와 같다.

---

21) 김지영(2012). 경상북도 국악강사풀제의 강사 직무만족도 분석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2) 이은주(2009), 강사풀(pool)제를 통해 본 국악교육의 실태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3) 김성혜(2019). 중등 음악 교사의 효능감 조사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표Ⅲ-2> 설문지 구성내용

영역	문항내용	문항번호
일반적 특성	성별	1
	연령	2
	전공	3
	학력	4
	정교사 자격증	5
	문화예술사 자격증	6
	국악 강사 경력	7
국악 교육 실태	가장 많이 수업하고 있는 학교형태	8
	중점 수업 분야	9
	학생들의 선호 분야	10
	국악 관련 내용의 난이도	11
	적합한 주당 국악 교육 시수	12
	국악 교육을 시작하기 적합한 학년	13
	장구 외 주로 사용하는 국악기	14
	ICT 사용 의존도	15
	멀티미디어를 주로 사용하는 영역	16
	멀티미디어 선호 종류	17
	학습지도안 작성에 따른 학교 제출 여부	18
	학생들의 국악 수업 관심도 변화	19
	학교 국악기 비치 수준 만족도	20
	학교 멀티미디어 환경 만족도	21
	담당 교사와의 상호작용	22
	학교와 국악 강사와의 상호작용	23

협회 만족도	협회 연수 만족도	24
	협회 연수 내용의 현장 적용 유용성	25
	학교 배치 만족도	26
교사 효능감	국악 수업내용의 적절한 동기유발	27
	국악 수준차를 고려한 수업	28
	학생들의 예기치 못한 반응 대처	29
	국악에 대한 이론적 지식	30
	국악 실기 능력	31
	국악 교육 연구	32
	국악 동아리 지도 자신감	33
	행정 운영	34
	공학이용자신감	35
	국악 교과 지도 효능감	36
	목표의식, 사명감	37

### 3.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방법 및 절차는 설문조사로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문헌연구, 설문지 설계, 설문지 배포 및 회수, 분석, 결과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Ⅲ-3>과 같다.

〈표Ⅲ-3〉 연구 절차

절차	내용	기간
문헌연구	연구목적, 연구문제 수립 문헌연구	2018. 9. ~ 2019. 6.
설문지 설계	연구 대상 섭외 설문지 문항 제작 및 수정	2018. 5. ~ 2019. 1.
설문지 배포	서울, 인천 설문지 배포 및 회수	2019. 2. ~ 2019. 3.
분석	자료 처리 및 분석	2019. 3. ~ 2019. 4.
결과	분석 결과 해석 및 정리	2019. 3. ~ 2019. 5.

#### 4. 자료처리방법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2019년 국악강사풀제에 참여하는 국악 강사들을 대상으로 수기 설문을 통해 분석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한셀(Hancell) 201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1차 코딩 작업을 하였으며, 한셀(Hancell)과 SPSS 24.0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세한 자료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지역과 인천지역의 국악 강사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분석을 하였다.

둘째, 서울지역과 인천지역의 국악 교육실태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하였다.

셋째, 전체 국악강사의 교사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넷째, 전체 국악강사의 기본 설문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하였다. 교사효능감 차이의 유의미성을 Scheffé 사후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1$ ,  $p^{**} < 0.05$ ,  $p^{***} < 0.01$ 에서 검증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분석

본 연구는 서울과 인천의 국악강사풀제를 하고 있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국악 교육실태와 교사효능감을 비교 분석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의 결과를 토대로 일반적 특성, 국악 교육실태, 교사효능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1. 국악강사의 일반적 특성 분석

#### 문항1) 성별

연구 대상자인 전체 국악 강사 198명(100%) 중 여자가 170명(85.9%) 남자가 28명(14.1%)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국악 강사 114(100%) 중 여자는 103명(90.4%), 남자는 11명(9.6%)이었으며, 인천지역은 84명(100%) 중 여자는 67명(79.8%), 남자는 17명(20.2%)이었다. 서울지역과 인천지역 모두 여자 강사가 많았으며, 남자의 경우 인천지역이 서울지역보다 10.6% 더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Ⅳ-1>과 같다.

<표Ⅳ-1> 성별

지역	서울		인천		전체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성 별	여자	103	90.4	67	79.8	170	85.9
	남자	11	9.6	17	20.2	28	14.1
	합계	114	100.0	84	100.0	198	100.0

문항2) 연령

국악 강사의 연령은 서울지역은 30대가 74명(64.9%), 인천지역은 40대가 38명(4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지역은 30대가 60%가 넘는 비율을 보인 반면, 인천지역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40대의 비율이 40%대로 인천지역 응답자의 30대(36.9%)와 8.3%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보다 인천지역의 연령이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Ⅳ-2>와 같다.

<표Ⅳ-2> 연령

지역		서울		인천		전체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연령	20대	7	6.1	10	11.9	17	8.6
	30대	74	64.9	31	36.9	105	53.0
	40대	31	27.2	38	45.2	69	34.8
	50대 이상	2	1.8	5	6.0	7	3.5
	합계	114	100.0	84	100.0	198	100.0

문항3) 전공

국악 강사의 전공을 살펴보면, 현악기가 88명(44.4%)으로 가장 높았으며, 관악기 40명(20.2%), 성악 36명(20.2%), 타악기 28명(14.1%), 기타 6명(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과 인천지역으로 비교해도 현악기, 관악기, 성악, 타악기, 기타의 순으로 현악기가 서울지역 51명(44.7%), 인천지역 37명(44.0%)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기타 전공은 국악이론과 작곡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Ⅳ-3>와 같다.

<표Ⅳ-3> 전공

지역		서울		인천		전체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 공	현악기	51	44.7	37	44.0	88	44.4
	관악기	24	21.1	16	19.0	40	20.2
	타악기	18	15.8	10	11.9	28	14.1
	성악	19	16.7	17	20.2	36	18.2
	기타	2	1.8	4	4.8	6	3.0
	합계	114	100.0	84	100.0	198	100.0

#### 문항4) 학력

학력은 서울지역 65명(57.0%), 인천지역 42명(50.0%)으로 응답의 절반 이상이 석사학위를 받은 강사들이었다. 학사학위를 받은 강사는 서울지역 42명(36.8%), 인천지역 34명(40.5%), 전체 76명(38.4%)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강사 다음으로 많았다. 박사학위를 받은 강사도 서울지역 7명(6.1%), 인천지역 8명(9.5%), 전체 15명(7.6%)으로 나타났다. 박사학위를 받은 강사들의 비율은 적으나 학력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보여진다. 기타 학력은 전수자이다. 자세한 내용은 <표Ⅳ-4>와 같다.

<표 IV-4> 학력

지역		서울		인천		전체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학력	학사	42	36.8	34	40.5	76	38.4
	석사	65	57.0	42	50.0	107	54.0
	박사	7	6.1	8	9.5	15	7.6
	기타	0	0.0	0	0.0	0	0.0
	합계	114	100.0	84	100.0	198	100.0

문항5) 정교사 자격증

정교사 자격증은 서울지역은 ‘있다’로 응답한 강사가 39명(34.2%), ‘없다’로 응답한 강사가 75명(65.8%)으로 ‘없다’고 응답한 강사 비율이 31.6%가 더 높았다. 반면, 인천지역은 ‘있다’로 응답한 강사가 46명(54.8%), ‘없다’고 응답한 강사가 38명(45.2%)으로 ‘있다’로 응답한 강사 비율이 9.6%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지역과 상반되는 응답을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IV-5>와 같다.

<표 IV-5> 정교사 자격증

지역		서울		인천		전체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정교사 자격증	유(有)	39	34.2	46	54.8	85	42.9
	무(無)	75	65.8	38	45.2	113	57.1
	합계	114	100.0	84	100.0	198	100.0

문항6) 문화예술사 자격증

문화예술사 자격증은 서울지역 95명(83.3%)과 인천지역 82명(97.6%)으로 모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화예술사 자격증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국악 강사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있는 만큼 강사 재교육을 통한 강사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었다. 구체적 내용은 <표Ⅳ-6>과 같다.

<표Ⅳ-6> 문화예술사 자격증

지역		서울		인천		전체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문화예술사 자격증	유(有)	95	83.3	82	97.6	177	89.4
	무(無)	19	16.7	2	2.4	21	10.6
	합계	114	100.0	84	100.0	198	100.0

문항7) 경력

국악 강사의 경력은 서울지역은 5~10년 미만의 응답이 49명(43.0%), 인천지역은 10~15년 미만이 28명(3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5~10년 미만과 10~15년 미만의 강사가 60%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15년 이상의 강사 경력을 지닌 강사도 서울지역 14명(12.3%), 인천지역 11명(13.1%)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Ⅳ-7>과 같다.

<표Ⅳ-7> 경력

지역		서울		인천		전체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경력	2년 미만	5	4.4	5	6.0	10	5.1
	2-5년 미만	16	14.0	17	20.2	33	16.7
	5-10년 미만	49	43.0	23	27.4	72	36.4
	10-15년 미만	30	26.3	28	33.3	58	29.3
	15년 이상	14	12.3	11	13.1	25	12.6
	합계	114	100.0	84	100.0	198	100.0

## 2. 국악 교육실태 분석

8~26문항의 설문내용은 국악 강사들의 국악 교육실태 및 국악협회 만족도를 질문하는 문항이다. 8번 문항부터 18번 문항까지는 선다형 문항으로 문항별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19-26번 문항까지는 리커트 척도 문항으로 빈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8-18번 문항의 빈도분석

문항8) 가장 많이 수업하고 있는 학교형태

서울지역과 인천지역 모두 초등학교가 각각 서울 99명(86.8%), 인천 61명

(70.9%)으로 가장 많았다. 두 지역 모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에서의 국악 교육이 중·고등학교보다 수요가 많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Ⅳ-8>과 같다.

<표Ⅳ-8> 가장 많이 수업하고 있는 학교형태

학교형태	서울		인천		전체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초등학교	99	86.8	61	72.6	160	80.8
중학교	7	6.1	17	20.2	24	12.1
고등학교	8	7.0	6	7.1	14	7.1
합계	114	100.0	84	100.0	198	100.0

#### 문항9) 중점 수업 분야

중점 수업 분야는 국악 강사가 가장 많이 가르치는 영역으로, 성악이 서울 지역 71명(62.3%), 인천지역 49명(58.3%)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성악이 120명(60.6%)으로 학교에서의 국악 수업에서 가장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 짐을 알 수 있다. 기타 응답으로는 ‘전통놀이(강강술래 놀이, 자치기 등)’, ‘창작타악(타악퍼포먼스)’ 등이 있었다. 중점 수업 분야의 기악 부분은 사물놀이를 제외한 여러 국악기를 중점으로 수업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표Ⅳ-9>와 같다.

〈표Ⅳ-9〉 중점 수업 분야

중점 수업 분야	서울		인천		전체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성악	71	62.3	49	58.3	120	60.6
사물놀이	12	10.5	16	19.0	28	14.1
기악	18	15.8	11	13.1	29	14.6
국악이론	10	8.8	8	9.5	18	9.1
기타	3	2.6	0	0.0	3	1.5
합계	114	100.0	84	100.0	198	100.0

문항10) 학생들의 선호 분야

학생들의 선호 분야는 국악 강사가 느끼기에 학생들이 어느 분야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설문으로 강사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었다. 서울지역과 인천지역 모두 사물놀이가 40명(35.1%)과 28명(33.3%)으로 가장 높았다. 국악 강사들이 중점적으로 수업하는 성악 영역과는 다르게 학생들은 기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전통놀이(강강술래 놀이, 자치기 등)’, ‘창작타악(타악퍼포먼스)’ 등이다. 기악 부분은 사물놀이를 제외한 국악기 선호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표Ⅳ-10〉과 같다.

<표Ⅳ-10> 학생들의 선호 분야

학생들의 선호분야	서울		인천		전체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성악	33	28.9	20	23.8	53	26.8
사물놀이	40	35.1	28	33.3	68	34.3
기악	34	29.8	27	32.1	61	30.8
국악이론	0	0.0	8	9.5	8	4.0
기타	7	6.1	1	1.2	8	4.0
합계	114	100.0	84	100.0	198	100.0

문항11) 국악 내용 난이도

국악 내용 난이도는 현행 음악 교과서의 국악 관련 내용에 관한 것으로, 서울지역과 인천지역 강사 모두 ‘적당하다’로 응답한 강사가 서울지역 64명(56.1%), 인천지역 43명(51.2%)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약간 어렵다’에 대한 응답은 음악 교과서 별로 국악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수업의 기준을 찾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서울지역이 35명(30.7%), 인천지역이 26명(31.0%)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Ⅳ-11>과 같다.

<표Ⅳ-11> 국악 내용 난이도

국악 내용 난이도	서울		인천		전체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매우 쉽다	1	0.9	0	0.0	1	0.5
비교적 쉽다	13	11.4	14	16.7	27	13.6
적당하다	64	56.1	43	51.2	107	54.0
약간 어렵다	35	30.7	26	31.0	61	30.8
매우 어렵다	1	0.9	1	1.2	2	1.0
합계	114	100.0	84	100.0	198	100.0

문항12) 적합한 주당 국악 교육 시수

국악 강사들에게 적합한 국악 교육 시수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198명 중 114명(57.6%)이 ‘주당 2시간’을 선호하였다. 서울지역은 ‘주당 1시간’의 응답이 25명(21.9%)으로 인천지역의 5명(6.0%)보다 15.9% 더 높게 나타났다. 인천지역은 ‘주당 4시간’이라고 응답한 강사가 22명(26.2%)으로 서울지역 응답자 10명(8.8%)보다 17.4%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지역은 적합한 주당 국악 교육 시수에 대하여 ‘주당 1~2시간’을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고, 인천지역은 ‘주당 2~4시간’으로 응답하여 서울지역보다 국악 교육에 대한 비중을 더 높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리하면 다음 <표Ⅳ-12>와 같다.

<표Ⅳ-12> 적합한 주당 국악 교육 시수

주당 시수	서울		인천		전체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주당 1시간	25	21.9	5	6.0	30	15.2
주당 2시간	71	62.3	43	51.2	114	57.6
주당 3시간	8	7.0	14	16.7	22	11.1
주당 4시간 이상	10	8.8	22	26.2	32	16.2
합계	114	100.0	84	100.0	198	100.0

문항13) 국악 교육을 시작하기 적합한 학년

국악 교육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학년은 서울지역은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이 53명(46.5)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인천지역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이 36명(42.9%),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이 35명(41.7%)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과 인천지역 모두 ‘초등학교에서 국악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Ⅳ-13>과 같다.

<표Ⅳ-13> 국악 교육을 시작하기 적합한 학년

적합 학년	서울		인천		전체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유치원(만3세)	17	14.9	8	9.5	25	12.6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	53	46.5	35	41.7	88	44.4

초등학교 고학년 (4-6학년)	44	38.6	36	42.9	80	40.4
중학생	0	0.0	5	6.0	5	2.5
고등학생	0	0.0	0	0.0	0	0.0
합계	114	100.0	84	100.0	198	100.0

문항14) 장구 외 주로 사용하는 국악기

장구 외 주로 사용하는 국악기에 대한 응답으로 ‘단소’의 응답이 서울지역은 81명(71.1%) 인천지역은 54명(64.3%) 가장 높았다. ‘기타’ 응답으로 장구 외 주로 사용하는 국악기에는 ‘소고’, ‘모듬북’, ‘해금’ 등의 응답이 많았다. 응답의 결과를 보면 음악 교과서 내용에 포함되는 ‘단소’, ‘소금’, ‘가야금’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타 ‘소고’를 사용한다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강사들이 많았다. 자세한 내용은 <표Ⅳ-14>와 같다.

<표Ⅳ-14> 장구 외 주로 사용하는 국악기

국악기	서울		인천		전체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단소	81	71.1	54	64.3	135	68.2
소금	9	7.9	12	14.3	21	10.6
가야금	15	13.2	13	15.5	28	14.1
기타	9	7.9	5	6.0	14	7.1
합계	114	100.0	84	100.0	198	100.0

문항15) ICT 사용 의존도

ICT 사용 의존도를 살펴보면, 서울지역과 인천지역 모두 ‘교사가 대부분의 수업을 진행하고 보조로 사용한다. (30% 정도)’가 서울지역 88명(77.2%), 인천지역 62명(73.8%)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다. 강사가 대부분의 수업을 이끌며 ICT를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IV-15>와 같다.

<표 IV-15> ICT 사용 의존도

ICT 사용 의존도	서울		인천		전체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0%)	10	8.8	2	2.4	12	6.1
교사가 대부분의 수업을 진행하고 보조로 사용한다. (30% 정도)	88	77.2	62	73.8	150	75.8
국악 수업 대부분에 사용한다. (60% 정도)	13	11.4	11	13.1	24	12.1
국악 수업 시 모든 영역에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80% 이상)	3	2.6	9	10.7	12	6.1
합계	114	100.0	84	100.0	198	100.0

문항16) 멀티미디어를 주로 사용하는 영역

멀티미디어를 주로 사용하는 영역으로, ‘감상’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서울지역은 ‘감상’ 80명(70.2%)이 응답하였으며, 인천지역은 48명(57.1%)이 응답을 하였다. 감상영역에 두드러지게 멀티미디어 사용이 많은 것은 때때

직접 가서 보거나 참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기타 응답으로는 국악이론 수업에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IV-16>과 같다.

<표 IV-16> 멀티미디어를 주로 사용하는 영역

멀티미디어를 주로 사용하는 영역	서울		인천		전체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가창	23	20.2	16	19.0	39	19.7
기악	2	1.8	12	14.3	14	7.1
감상	80	70.2	48	57.1	128	64.6
창작	2	1.8	7	8.3	9	4.5
기타	7	6.1	1	1.2	8	4.0
합계	114	100.0	84	100.0	198	100.0

문항17)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종류

서울지역과 인천지역 모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멀티미디어로 ‘유튜브’를 선호하였다. ‘유튜브’를 꼽은 이유로는 다양한 국악 아이템을 찾을 수 있으며, 교과서 내의 ‘감상’ 영역에 나오는 곡을 다양한 버전으로 보여 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이스크림’에 대한 응답도 서울지역 35명(30.7%), 인천지역 25명(29.8%)으로 유튜브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아이스크림의 활용이 많은 것은 교과서 내용에 맞게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어 교과서 내에 실린 향토 민요에 대한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보였

다. 그 외 전체 응답에서 ‘기타’ 16명(8.1%)의 응답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재구성하여 사용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Ⅳ-17>과 같다.

<표Ⅳ-17>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종류

종류	서울		인천		전체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아이스크림	35	30.7	25	29.8	60	30.3
에듀넷	1	0.9	9	10.7	10	5.1
유튜브	64	56.1	48	57.1	112	56.6
기타	14	12.3	2	2.4	16	8.1
합계	114	100.0	84	100.0	198	100.0

문항18) 학습지도안 제출 여부

학교에 학습지도안 제출 여부에 관한 질문에 서울지역과 인천지역 모두 ‘제출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제출하지 않는 이유로는 국악 협회에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 동안의 수업내용을 수업 일지형태로 제출하기 때문에 따로 학교에 제출하지 않는다.’ 고 하였다. 학습지도안을 원하는 학교에는 ‘약안으로 제출한다’ 고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Ⅳ-18>과 같다.

<표Ⅳ-18> 학습지도안 제출 여부

종류	서울		인천		전체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제출한다	54	47.4	20	23.8	74	37.4
제출하지 않는다	60	52.6	64	76.2	124	62.6
합계	114	100.0	84	100.0	198	100.0

나. 19 - 26문항 리커트 척도 빈도분석

<표Ⅳ-19> 국악 교육실태와 협회 만족도 문항 내용

영역	문항내용	문항번호
국악 교육 실태	학생들의 국악 수업 관심도 변화	19
	학교 국악기 비치 수준 만족도	20
	학교 멀티미디어 환경 만족도	21
	담당 교사와의 상호작용	22
	학교와 국악 강사와의 상호작용	23
협회 만족도	협회 연수 만족도	24
	협회 연수 내용의 현장 적용 유용성	25
	학교 배치 만족도	26

문항 19)는 수업을 하면서 강사가 느끼는 학생들의 국악 수업 관심도에 대한 변화를 묻는 문항이다. 국악 강사가 느끼는 정도를 ‘매우 그렇다’, ‘그

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학생의 관심도 변화는 120명(60.6%)이 ‘매우 그렇다’ 로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국악 관심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학생들에게 직접 묻는 문항이 아닌 만큼 국악 강사의 개인적 견해가 포함되었다.

문항20)은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국악기 만족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 41명(20.7%)이 응답하였다.

문항21)은 국악 수업에서의 멀티미디어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이다. 전체 ‘보통이다’ 의 응답이 80명(40.4%), ‘그렇다’ 의 응답이 77명(38.9%)으로 학교 멀티미디어 환경 만족도는 긍정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22)는 수업 중 담당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 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현재 국악 강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경우, 담임 교사나 음악 교사가 수업에 같이 동행하게 되어 있다. 즉, 수업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질 좋은 수업이 되도록 서로 의견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 의 응답이 80명(40.4%)으로 가장 높았다. 담당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23)는 학교 행정업무와 행사 수업과 관련하여 학교와 강사와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 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그렇다’ 79명(39.9%), ‘매우 그렇다’ 70명(35.4%)로 전체 응답의 149명(75.3%)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학교와의 원만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항24)는 국악 강사들을 위해 학기 중이나 방학 기간에 이루어지는 협회 국악 연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이다.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로 ‘보통이다’ 의 응답이 81명(40.9%)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기타 강사의 의견으로는 협회의 연수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연수를 하고 있어 연수가 전반적으로 지루하거나 아는 내용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항25)는 협회가 제공하는 연수의 내용이 학교 현장에 유용하게 쓰이는지에 대한 만족도이다. 협회 연수의 현장 유용성에 대해 대부분의 강사들이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50%로 긍정적인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강사들의 응답 설문에서 학교 현장에서 강사들이 협회 연수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여 수업을 이끌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문항26)은 협회의 학교 배치에 대한 만족도이다. 전체적으로 ‘보통이다’ 로 응답한 강사가 70명(35.4%)으로 많았다. 전반적으로 배치에 대하여 곁으로 보여지는 만족도는 ‘보통이다’ 라고 응답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32명(16.2%)이 응답한 비율을 보면 배치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이해된다. 응답 설문에서 강사들은 더 많은 학교의 배치를 원하고 협회에서 되도록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협회와 강사들 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Ⅳ-20>과 같다.

<표Ⅳ-20> 19 - 26문항 리커트 척도 빈도분석

구분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N(%)	N(%)	N(%)	N(%)	N(%)	N(%)
국악 교육 실태	학생들의 국악 수업 관심도 변화	120 (60.6)	68 (34.3)	10 (5.1)	0 (0.0)	0 (0.0)	198 (100.0)
	학교 국악기 비치 수준 만족도	33 (16.7)	41 (20.7)	77 (38.9)	42 (21.2)	5 (2.5)	198 (100.0)
	학교 멀티미디어 환경 만족도	30 (15.2)	77 (38.9)	80 (40.4)	10 (5.1)	1 (0.5)	198 (100.0)
	담당 교사와의 상호 작용	25 (12.6)	80 (40.4)	63 (31.8)	25 (12.6)	5 (2.5)	198 (100.0)
	학교와 국악 강사와의 상호작용	70 (35.4)	79 (39.9)	41 (20.7)	7 (3.5)	1 (0.5)	198 (100.0)

협회 만족도	협회 연수 만족도	17 (8.6)	69 (34.8)	81 (40.9)	28 (14.1)	3 (1.5)	198 (100.0)
	협회 연수 내용의 현장 적용 유용성	20 (10.1)	53 (26.8)	99 (50.0)	22 (11.1)	4 (2.0)	198 (100.0)
	학교 배치 만족도	11 (5.6)	38 (19.2)	70 (35.4)	47 (23.7)	32 (16.2)	198 (100.0)

### 3. 국악 강사 교사효능감 분석

27번 문항부터 37번 문항까지는 국악 강사의 교사효능감에 대한 결과이다. 전체 국악 강사의 교사효능감 빈도분석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를 통하여 나타나는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가. 전체 국악 강사의 교사효능감 빈도분석

<표Ⅳ-21> 교사효능감 문항 내용

영역	문항 내용	문항번호
교사 효능감	국악 수업내용의 적절한 동기유발	27
	국악 수준차를 고려한 수업	28
	학생들의 예기치 못한 반응 대처	29
	국악에 대한 이론적 지식	30
	국악 실기 능력	31
	국악 교육 연구	32
	국악 동아리 지도 자신감	33
	행정 운영	34
	공학이용자신감	35

	국악 교과 지도의 효능감	36
	목표의식, 사명감	37

문항27)은 ‘나는 국악 수업내용과 관련된 적절한 동기유발을 할 수 있다’는 문항으로 적절한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다는 교사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28)은 ‘학생들의 국악 수준차를 고려한 수업을 할 수 있다’에 대한 문항으로 ‘그렇다’ 100명(50.5%), ‘매우 그렇다’ 72명(36.4%)으로 172명(86.9%)의 강사들이 수업에서의 학생들의 국악 수준차를 고려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교사효능감이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항29)는 ‘나는 국악 수업에서 학생들의 예기치 못한 반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문항으로 임기응변에 대한 응답이다.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빈도가 112명(56.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악 수업지도에 있어 예기치 못한 반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능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항30)은 ‘나는 국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갖고 있다’에 대한 것으로, 서울지역은 ‘그렇다’가 58명(50.9%), ‘매우 그렇다’ 51명(44.7%)으로 긍정적인 효능감을 보였다. 인천지역 역시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강사가 41명(48.8%), ‘그렇다’ 38명(45.2%)으로 이론적 지식에 대한 긍정적인 효능감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응답 빈도가 95.4%로 높은 것으로 보아 국악 강사들의 이론적 지식에 대한 교사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문항31)은 ‘나는 수업에 필요한 국악 실기 능력을 갖고 있다.’에 대한 응답이다. ‘매우 그렇다’ 97명(49.0%), ‘그렇다’ 94명(47.5%)의 응답 빈도가 96.5%로 높게 나타나 국악 실기 능력에 대한 강사들의 교사효능감이 높음을

집작할 수 있었다.

문항32)는 ‘나는 연수나 학회를 통해 국악 교육 연구를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에 대한 전체 응답으로 ‘그렇다’가 84명(42.2%)으로 가장 높았다. 국악 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하여 ‘국악교육연구를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는 응답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의 비율이 92.4%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교사효능감을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문항33)은 ‘국악 수업뿐만 아니라 동아리, 방과 후 활동 등의 국악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국악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이다. 이를 분석해 보면, ‘그렇다’가 94명(47.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89.4%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문항34)는 ‘나는 국악 관련 재정적 지원에 대해 관리자를 이해시키는데 자신이 있다’라는 문항으로, 강사들이 재정적 지원에 대해 관리자를 이해시키는데 효능감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문항35)는 ‘나는 국악 영역에 있어서 최신 교육 공학을 이용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라고 묻는 문항이다. 이는 날로 발달하는 과학 기술의 활용에 대한 효능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보통이다’로 84명(42.4%)이 응답한 것으로 보아 최신 교육 공학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교사자신감 정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항36)은 ‘나는 공개수업 및 연구 수업을 통해 나의 수업을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줄 수 있다.’에 대한 응답으로 교과서의 국악 내용 지도에 대한 교사효능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80명(40.4%)이 ‘그렇다’, 71명(35.9%)이 ‘매우 그렇다’로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문항37)은 국악 교사로서의 목표의식과 사명감에 대한 교사효능감 정도가 ‘매우 그렇다’ 98명(49.5%), ‘그렇다’ 78명(39.4%)으로 전체 198명 중 176명(88.9%)이 목표의식과 사명감에 대한 교사효능감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

체 교사효능감 빈도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Ⅳ-22>와 같다.

<표Ⅳ-22> 전체 국악 강사의 교사효능감 빈도 분석

구분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N(%)	N(%)	N(%)	N(%)	N(%)	N(%)
교사 효능감	국악 수업내용의 적절한 동기유발	87 (43.9)	90 (45.5)	21 (10.6)	0 (0.0)	0 (0.0)	198 (100.0)
	국악 수준차를 고려한 수업	72 (36.4)	100 (50.5)	22 (11.1)	4 (2.0)	0 (0.0)	198 (100.0)
	학생들의 예기치 못한 반응 대처	68 (34.3)	112 (56.6)	16 (8.1)	2 (1.0)	0 (0.0)	198 (100.0)
	국악이론지식	92 (46.5)	96 (48.5)	10 (5.1)	0 (0.0)	0 (0.0)	198 (100.0)
	국악 실기 능력	97 (49.0)	94 (47.5)	7 (3.5)	0 (0.0)	0 (0.0)	198 (100.0)
	국악교육연구	55 (27.8)	84 (42.4)	44 (22.2)	14 (7.1)	1 (0.5)	198 (100.0)
	국악 동아리 지도 자신감	83 (41.9)	94 (47.5)	21 (10.6)	0 (0.0)	0 (0.0)	198 (100.0)
	국악 행정 운영	31 (15.7)	70 (35.4)	86 (43.4)	10 (5.1)	1 (0.5)	198 (100.0)
	공학이용자신감	35 (17.7)	62 (31.3)	84 (42.4)	15 (7.6)	2 (1.0)	198 (100.0)
	국악교과지도 효능감	71 (35.9)	80 (40.4)	43 (21.7)	4 (2.0)	0 (0.0)	198 (100.0)
목표의식, 사명감	98 (49.5)	78 (39.4)	22 (11.1)	0 (0.0)	0 (0.0)	198 (100.0)	

나. 전체 국악 강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사효능감 분석

1번 문항부터 7번 문항에 따른 성별, 연령, 전공, 학력, 교사자격증, 문화예술사 자격증, 강사 경력과 지역(서울, 인천)에 따라 전체 교사효능감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전체 성별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

전체 국악 강사 198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교사효능감 11문항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성별과 교사효능감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0.909$ ,  $p=0.364$ 로 유의수준 0.1 레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성별과 교사효능감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평균 점수가 여자 4.15, 남자 4.06으로 4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악 강사의 성별에 관계없이 교사효능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Ⅳ-23>과 같다.

<표Ⅳ-23> 전체 성별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

( $n=198$ )

구분		교사효능감 차이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성별	여자	170	4.15	0.50	.909(0.364)
	남자	28	4.06	0.40	

$p^* < 0.1$ ,  $p^{**} < 0.05$ ,  $p^{***} < 0.01$

2) 전체 연령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

전체 연령에 따라 교사효능감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F=4.158$ ,  $p=0.007$ 으로 유의수준 0.01레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20대 평균은 3.89점, 30대는 4.09점, 40대는 4.23점, 50대 이상은 4.52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사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Ⅳ-24>와 같다.

<표Ⅳ-24> 전체 연령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

( $n=198$ )

구분		교사효능감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연령	20대 <sup>a</sup>	17	3.89	0.54	4.158	0.007***	a < d
	30대 <sup>b</sup>	105	4.09	0.51			
	40대 <sup>c</sup>	69	4.23	0.41			
	50대 이상 <sup>d</sup>	7	4.52	0.15			

$p^* < 0.1$ ,  $p^{**} < 0.05$ ,  $p^{***} < 0.01$

3) 전체 전공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

국악 강사들의 전공에 따라 교사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국악 전공은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성악, 기타로 나누었으며, 기타 전공에는 국악이론과 국악작곡 전공자가 포함되었다. 결과는,  $F=0.943$ ,  $p=0.440$ 으로 유의수준 0.1레벨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전공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는 유의미 하지 않지만 타악을 제외한 전공 평균이 4점을 넘

는 것으로 보아 전공과는 상관없이 교사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자세한 내용은 <표 IV-25>과 같다.

<표 IV-25> 전체 전공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

(n=198)

구분		교사효능감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전공	현악기 <sup>a</sup>	88	4.14	0.49	0.943	0.440	n/a
	관악기 <sup>b</sup>	40	4.22	0.48			
	타악기 <sup>c</sup>	28	3.99	0.44			
	성악 <sup>d</sup>	36	4.16	0.53			
	기타 <sup>e</sup>	6	4.15	0.41			

$p^* < 0.1$ ,  $p^{**} < 0.05$ ,  $p^{***} < 0.01$

#### 4) 전체 학력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

강사들의 학력에 따른 교사효능감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F=2.337$ ,  $p=0.099$ 으로 유의수준 0.1레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평균 점수를 보면 학사 4.06, 석사 4.16, 박사 4.34로 학력이 올라갈수록 국악 강사의 교사효능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IV-26>과 같다.

<표Ⅳ-26> 전체 학력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

(n=198)

구분		교사효능감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학력	학사 <sup>a</sup>	76	4.06	0.48	2.337	0.099*	n/a
	석사 <sup>b</sup>	107	4.16	0.48			
	박사 <sup>c</sup>	15	4.34	0.51			

$p^* < 0.1$ ,  $p^{**} < 0.05$ ,  $p^{***} < 0.01$

5) 전체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유무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의 유무에 따른 교사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교사효능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2.263$ ,  $p=0.025$ 으로 유의수준 0.05레벨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국악 강사의 교사효능감 평균은 4.24점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국악 강사의 평균 4.08점 보다 0.16점 높은 차이를 보여 상대적으로 높은 교사효능감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Ⅳ- 27>와 같다.

<표Ⅳ- 27> 전체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유무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

(n=198)

구분		교사효능감 차이			t (p)
		N	평균	표준편차	
중등 2급 정교사	유(有)	77	4.24	0.52	2.263(0.025**)
	무(無)	121	4.08	0.45	

$p^* < 0.1$ ,  $p^{**} < 0.05$ ,  $p^{***} < 0.01$

6) 전체 문화예술사 자격증 유무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

문화예술사 자격증 유무에 따른 교사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t=2.007$ ,  $p=0.046$ 으로 유의수준 0.05레벨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문화예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교사효능감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강사보다 평균이 0.22점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자세한 내용은 <표IV-28>과 같다.

<표IV-28> 전체 문화예술사 자격증 유무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  
( $n=198$ )

구분		교사효능감 차이			t (p)
		N	평균	표준편차	
문화예술사	유(有)	177	4.16	0.48	2.007(0.046 <sup>**</sup> )
	무(無)	21	3.94	0.50	

$p^* < 0.1$ ,  $p^{**} < 0.05$ ,  $p^{***} < 0.01$

7) 전체 국악 강사 경력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

전체 국악 강사의 경력에 따른 교사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결과를 보면,  $F=3.247$ ,  $p=0.013$ 으로 유의수준 0.05레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력 2년 미만은 3.94점, 2-5년 미만 4.02점, 5-10년 미만 4.06점, 10-15년 미만 4.25점, 15년 이상 4.33점으로 경력이 올라갈수록 높은 교사효능감을 보였다. 특히, 경력이 2년 미만인 강사와 15년 이상 강사의 교사효능감 평균의 차이가 0.39점으로 나타나 2년 미만 강사의 교사효능감이 15년 이상의 강사의 교사효능감보다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

인 내용은 <표Ⅳ-29>와 같다.

<표Ⅳ-29> 전체 국악 강사 경력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

(*N*=198)

구분		교사효능감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i>F</i>	p	scheffe
경력	2년 미만 <sup>a</sup>	10	3.94	0.57	3.247	0.013 <sup>**</sup>	n/a
	2-5년 미만 <sup>b</sup>	33	4.02	0.45			
	5-10년 미만 <sup>c</sup>	72	4.06	0.51			
	10-15년 미만 <sup>d</sup>	58	4.25	0.46			
	15년 이상 <sup>e</sup>	25	4.33	0.40			

$p^* < 0.1$ ,  $p^{**} < 0.05$ ,  $p^{***} < 0.01$

#### 8) 지역(서울, 인천)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

본 연구가 서울과 인천지역으로 나누어 설문한 것을 토대로 교사효능감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t=-2.604$ ,  $p=0.010$ 으로 유의수준 0.01레벨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평균을 살펴보면, 서울이 4.06점, 인천이 4.24점으로 인천이 서울보다 0.18점이 높게 나타났다. 즉, 서울지역보다 인천지역의 국악 강사들의 교사효능감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Ⅳ-30>와 같다.

<표 IV - 30>지역(서울, 인천)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

(n=198)

구분		교사효능감 차이			t (p)
		N	평균	표준편차	
지역	서울	114	4.06	0.49	-2.604(0.010 <sup>***</sup> )
	경기	84	4.24	0.46	

$p^* < 0.1$ ,  $p^{**} < 0.05$ ,  $p^{***} < 0.01$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2019년 국악강사풀제에 참여하는 서울과 인천의 국악강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악강사들의 국악 교육실태와 교사효능감에 대하여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국악강사풀제에 참여하는 국악 강사는 현악기 전공자와 여자 강사가 많았으며, 석사학위 소지자의 강사들이 많았다. 박사학위를 가진 강사도 있어 국악 강사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연령에 있어서 서울지역은 30대의 연령이, 인천지역은 40대의 연령이 높게 나타났다. 정교사 자격증과 문화예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강사들은 인천지역이 서울지역보다 더 많았으며, 경력에 있어서는 5-10년 미만이 72명(36.4%), 10-15년 미만이 58명(29.3%)으로 5-15년 미만의 강사 비율이 65.7%를 차지하여 국악강사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강사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국악 교육실태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서 국악 수업을 하는 강사들이 많았으며, 가장 많이 가르치는 영역으로는 성악이었는데 이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성악(민요)이 많이 실려 있고 국악강사풀제 학교 신청에 있어서도 초등학교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 음악 교과서 내의 국악 내용 난이도에 대한 국악 강사들은 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약간 어렵다고 응답한 강사의 응답이 적지 않다. 이는 학교마다 사용하는 음악 교과서도 다를뿐더러 음악 교과서 출판사 별로 난이도에 대한 기준이 달라 나타난 응답의 결과라 추측된다. 수업 시수에 있어서는 주당 2시간이 적당하다(114명, 57.6%)고 하였는데, 다른 교과 수업과 음악 수업을 고려해 본다면 적당한 시수라 여겨진다.

셋째, 국악 협회에서 제공하는 연수와 연수내용의 현장 적용 유용성, 학교 배치에 대한 전체 국악강사들의 응답의 평균을 보면 83명(42.1%)이 ‘보통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넷째, 국악강사들의 교사효능감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교사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국악수업과 관련한 동기유발, 국악 수준차를 고려한 수업, 학생들의 예기치 못한 반응, 국악이론 지식, 국악 교육연구, 국악 동아리 지도 자신감, 국악 교과 지도 효능감 문항은 ‘그렇다’ 로, 국악 실기 능력과 목표의식, 사명감에 대한 문항은 ‘매우 그렇다’ 로 긍정적인 교사효능감을 나타냈다. 국악 강사들 자신이 국악에 대한 자부심과 수업 열의에 대한 교사효능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전체 국악강사들의 일반적 특성을 대상으로 교사효능감 문항에 대하여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국악 강사들의 성별과 전공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4점이 넘는 평균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성별에 상관없이 높은 교사효능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었다. 연령과 학력, 경력에서는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경력이 오래될수록 교사효능감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경력이 높아질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은 것은 수업에서 학생들과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집중적으로 수업을 이끌 수 있는 능력 등 강사의 노하우가 쌓여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과 문화예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들의 교사효능감이 소지하지 않은 강사들보다 교사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지역과 인천지역의 국악강사들의 교사효능감 차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0.01레벨을 기준으로 유의미 수준이 0.010으로 인천지역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악강사풀제 강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사효능감이 전체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것으로 보아 강사들의 열정과 자기 자신에 대한 교육 활동의 믿음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리 국악 교육이

보다 효율적이고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된다.

## 2. 제언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악 협회가 제공하는 연수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강사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실기와 교수법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악 강사 연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연수의 내용이 연계성 있는 국악 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국악강사들의 실제 우수사례들을 모아 공유하며 국악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악 강사를 대상으로 교육실태와 협회 만족도,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국악 강사에 대한 교사효능감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국악 강사 교사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척도의 개발과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교육과학기술부(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정기술부
- 김병성(1996). **교육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 김혜정(2013). **초등 국악교육을 위한 이론과 실습**, 서울: 민속원.
- 윤명원, 주태원(2007). **교대·사대생을 위한 국악교육지도법**, 서울: 국악춘추사.
- 임신화(2010). **유아 국악지도 방법론**, 서울: 교육아카데미.
- 신명희, 강소연, 김은경, 김정민, 노원경, 박성은, 서은희, 원영실, 황은영 공저 (2010). **교육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신명희, 강소연, 김은경, 김정민, 노원경, 서은희, 송수지, 원영실, 임호용 공저 (2018). **교육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조규판, 주희진, 양수민 공저(2016). **교육 심리학**, 서울:학지사.
- Alderman, M.Kay(2015). Motivation for Achievement: Possibilities for Teaching and Learning. 김종남, 임선아 공역(2015). **성취동기 교수-학습에서 성취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서울: 학지사.

### 2. 학위논문

- 김성혜(2019). **중등 음악 교사의 효능감 조사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영(2012). **경상북도 국악강사풀제의 강사 직무만족도 분석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국악전공 석사학위 논문.
- 김진엽(2011).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초등국악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행온(2004). **강사풀제 운영을 통한 국악교육실태 조사연구 :경기도내 초·중·고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민재은(2008). **초등학교 국악교육의 실태 :국악수업의 활동내용 중심으로**, 성신

- 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미선(2013). 중학교 국악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를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애선(2009). 초등학교의 국악교육 지도 실태 조사 :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경  
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주(2009). 강사풀(pool)제를 통해 본 국악교육의 실태 조사연구, 중앙대학  
교 국악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소연(2012). 국악강사 지원사업에 따른 초등국악교육의 실태 :전라북도 초등  
학교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유정(2016). 현직 중·고등학교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국악교육의 실태 및 인  
식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 학술지

- 김민하(2016).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생활화 영역에 나타난 국악 교  
수·학습의 특징”, **국악교육연구**, 10(2), 5-31.
- 김영아(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국악  
관련 내용 고찰”, **국악교육연구**, 6(2). 5-25.
- 김정희(2006). “교사효능감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한국영재교육학회**, 5(2),  
5-25.
- 김현정(2014).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4학년 음악교과서 국  
악 영역 분석 연구”, **교육연구**, 60, 133-163.
- 박주만(2016). “초등 방과후학교 국악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음악교육  
연구**, 45(2), 125-147.
- 윤영애(2008). “10학년 국악 감상교육의 실태 연구”, **한국전통음악학**, 9,  
105-139.

## **ABSTRACT**

### Stat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and Sense of Efficacy Among Korean traditional Music Instructors

Kim, Bo Hyun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 s University

In today' s world, cultures openly intermix and even in one country, multiple cultures coexist. Thu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modern society is to protect the traditional cultural identity. In doing so, the educa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has a pivotal role.

In such context, this study seeks ways to advance the qualit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and to help improve the sense of efficacy among Korean traditional music instructors. To that end, Korean traditional music instructor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have been researched regarding their state of education and the sense of efficacy.

117 instructors in Seoul and 84 instructors in Incheon who participated in the 2019 Korean traditional Music Instructors' Pool have been surveyed to investigate the education and the sense of efficacy among the instructors. Surveys answered by 198 instructors have been analyzed after excluding 3 instructors in Seoul who majored in traditional theater. The survey consists

of 37 questions including general characteristics, stat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and instructors' sense of efficacy, and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Korean traditional music classes were taught more in elementary schools than middle or high schools in both Seoul and Incheon, and the most common class subject was singing. The class subjects most preferred by students were samulnori and instrument playing, which were different from what the instructors were focused on teaching. The instrument other than janggu that was played most often out of class was danso. Instructors responded that early years in elementary school was the right timing to start learning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thought that the music textbooks dealt with the 'appropriate level' of it. When asked about dependence on multimedia, 150 instructors (75.8% of total) said they depended on multimedia as support only about 30% of the time. When they did, Youtube was the most commonly used platform, and the subject of 'listening' was the most common purpose. They responded that they were sufficiently satisfied with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Association, and highly satisfied with their communication with the school.

The result of the frequency analysis on the sense of efficacy among Korean traditional music instructors showed that the sense of efficacy was generally high. Instructors responded they felt a high sense of efficacy regarding student motivation, adjustments for students with different levels of expertise, theoretical knowledge, sense of purpose, and sense of duty for teaching Korean traditional music.

The analysis of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instructors'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ased on their gender or major. Nonetheless, higher level of education and more professional experience, as well as the Second-Grade Middle School Teacher Certification or the Arts and Culture Education Instructor Certification led to higher sense of efficacy.

It has already been 18 years since the launch of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Instructors' Pool policy. While this means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conducted on the policy, they have focused mostly on the state and issues of education. This demands that more follow-up studies on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instructors' satisfaction and sense of efficacy.

부록<설문지>

## 국악강사의 국악교육실태 및 교사효능감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고 있으며 **국악강사의 국악교육실태 및 교사효능감**에 대하여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익명으로 이루어지며 학술적인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시간은 8분 정도** 소요됩니다.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연구자 : 김보현  
이메일: bbo0314@hanmail.net

<설문지>

※기본 설문

1. 성별	① 여자      ② 남자
2.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3. 전공	(예 : 가야금 ) _____
4. 학력	① 학사    ② 석사    ③ 박사    ④ 기타(            )
5. 중등 2급 정교사자격증	① 있다                      ② 없다
6. 문화예술사 자격증	① 있다                      ② 없다
7. 국악강사 경력	① 2년 미만      ② 2~5년 미만      ③ 5~10년 미만 ④ 10~15년 미만    ⑤ 15년 이상

※국악 교육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8. 선생님께서 현재 **가장 많이 수업하고 있는 학교**는 어디입니까?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9. 선생님께서 수업하실 때 **가장 많이 가르치시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성악    ② 사물놀이    ③ 기악    ④ 국악이론    ⑤ 기타(            )

10.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국악 수업 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성악 ② 사물놀이 ③ 기악 ④ 국악이론 ⑤ 기타( )
11. 해당 학년 학생들의 수준과 비교해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 관련 내용의 난이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쉽다 ② 비교적 쉽다 ③ 적당하다  
 ④ 약간 어렵다 ⑤ 매우 어렵다
12. 효과적인 국악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적합한 주당 국악 교육 시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주당 1시간 ② 주당 2시간 ③ 주당 3시간 ④ 주당 4시간 이상
13.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국악교육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느끼는 학년은 어느 학년입니까?  
 ① 유치원 (만3세 이상) ②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③ 초등학교 고학년(4~6) ④ 중학생 ⑤ 고등학생
14. 국악 수업 시 선생님께서 장구 외에 주로 활용하는 악기는 무엇입니까?  
 ① 단소 ② 소금 ③ 가야금 ④ 기타( )
15. 선생님께서 국악 수업 시 아이스크림 등의 ICT 사용 의존도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0%)  
 ② 교사가 대부분의 수업을 진행하고 보조로 사용한다. (30% 정도)  
 ③ 국악 수업 대부분에 사용한다. (60% 정도)  
 ④ 국악 수업 시 모든 영역에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80% 이상)
16. 선생님께서는 국악 수업의 어떤 영역에 멀티미디어를 주로 사용하십니까?  
 ① 가창 ② 기악 ③ 감상 ④ 창작 ⑤ 기타( )
17. 국악 수업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멀티미디어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아이스크림 ② 에듀넷 ③ 유튜브 ④ 기타( )
18. 국악 수업 시 각 차시별 학습지도안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십니까?  
 ① 제출한다 ② 제출하지 않는다

※ 문항을 읽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표 주십시오.

번호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9	국악강사풀제 수업을 받은 후 학생들의 <u>국악에 대한 관심</u> 이 많아졌다.	⑤	④	③	②	①
20	현재 학교에 비치된 <u>국악기들</u> 에 대하여 만족한다.	⑤	④	③	②	①

21	국악 수업에서의 <b>멀티미디어 사용</b> 에 대해 만족한다.	⑤	④	③	②	①
22	학교 담당교사는 국악수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국악강사와 <b>의논을 자주</b> 나눈다.	⑤	④	③	②	①
23	학교는 국악강사와 협의하여 <b>수업계획 및 일정을 수립</b> 한다.	⑤	④	③	②	①
24	국악강사풀체 협회에서 제공하는 <b>국악연수</b> 에 대해 만족한다.	⑤	④	③	②	①
25	현재 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악강사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은 <b>학교 현장에 적용</b> 하는데 유용하다.	⑤	④	③	②	①
26	협회에서 하고 있는 <b>학교 배치</b> 에 대해 만족한다.	⑤	④	③	②	①

※국악강사 자기효능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표 주십시오.

번호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7	나는 국악수업 내용과 관련된 <b>적절한 동기유발</b> 을 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28	나는 학생들의 <b>국악 수준차</b> 를 고려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29	나는 국악수업에서 <b>학생들의 예기치 못한 반응</b> 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30	나는 <b>국악에 대한 이론적 지식</b> 을 갖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31	나는 수업에 필요한 <b>국악 실기 능력</b> 을 갖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32	나는 연수나 학회를 통해 <b>국악교육 연구</b> 를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33	나는 국악 동아리를 통해 학생들이 <b>국악에 대한 자신감</b> 을 갖도록 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34	나는 국악 관련 <b>재정적 지원</b> 에 대해 관리자를 이해시키는데 자신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35	나는 국악 영역에 있어서 <b>최신 교육공학을 이용</b> 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36	나는 <b>공개수업 및 연구 수업</b> 을 통해 나의 수업을 기꺼이 <b>다른 사람</b> 에게 보여줄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37	나는 국악교사로서 <b>목표의식, 사명감</b> 을 갖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